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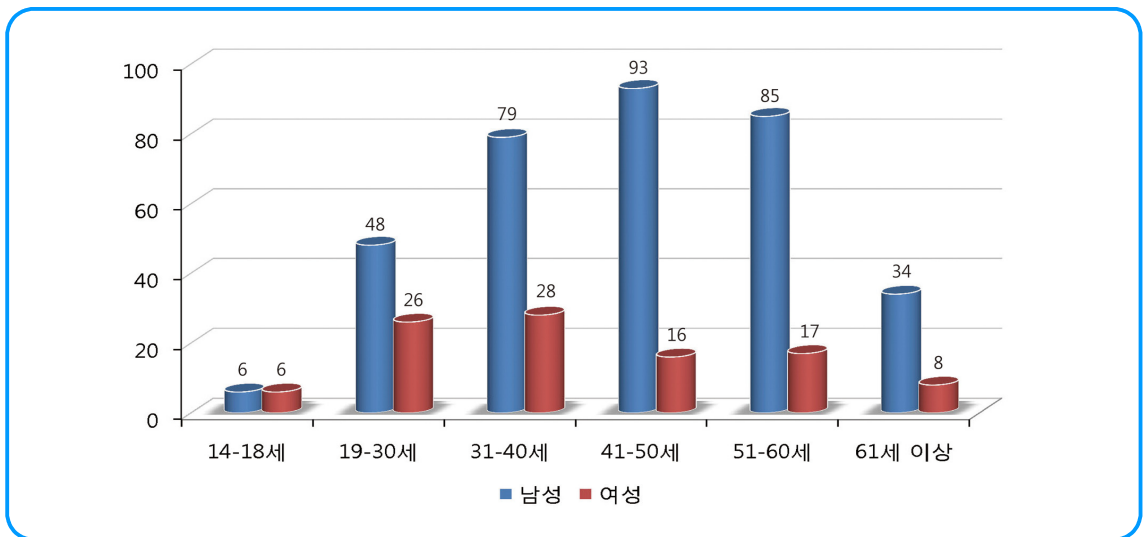
4. 2012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

가. 살인

〈표 17〉 살인범죄자의 성별 연령분포

단위 : 인원, %

연령	성별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4-18세		6(50.0)	6(50.0)	12(100.0)	11(100.0)	0(0.0)	11(100.0)
		(1.7)	(5.9)	(2.7)	(2.0)	(0.0)	(1.8)
19-30세		48(64.9)	26(35.1)	74(100.0)	83(90.2)	9(9.8)	92(100.0)
		(13.9)	(25.7)	(16.6)	(15.3)	(13.2)	(15.1)
31-40세		79(73.8)	28(26.2)	107(100.0)	100(86.2)	16(13.8)	116(100.0)
		(22.9)	(27.7)	(24.0)	(18.5)	(23.5)	(19.0)
41-50세		93(85.3)	16(14.7)	109(100.0)	193(89.4)	23(10.6)	216(100.0)
		(27.0)	(15.8)	(24.4)	(35.6)	(33.8)	(35.4)
51-60세		85(83.3)	17(16.7)	102(100.0)	109(89.3)	13(10.7)	122(100.0)
		(24.6)	(16.8)	(22.9)	(20.1)	(19.1)	(20.0)
61세 이상		34(81.0)	8(19.0)	42(100.0)	45(86.5)	7(13.5)	52(100.0)
		(9.9)	(7.9)	(9.4)	(8.3)	(10.3)	(8.5)
미상		0(0.0)	0(0.0)	0(0.0)	1(100.0)	0(0.0)	1(100.0)
		(0.0)	(0.0)	(0.0)	(0.2)	(0.0)	(0.2)
계		345(77.4)	101(22.6)	446(100.0)	542(88.9)	68(11.1)	610(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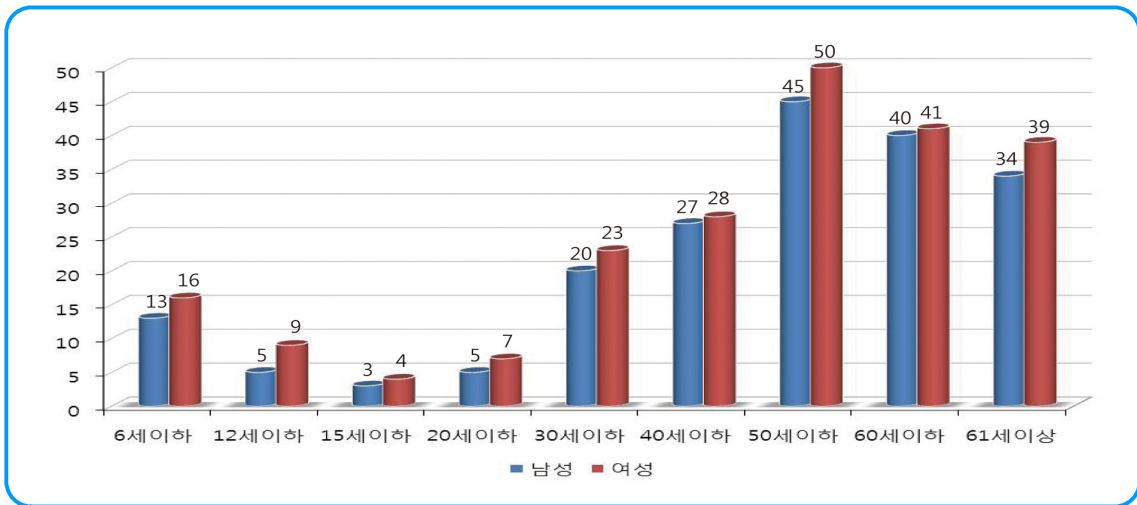
〈그림 19〉 살인범죄자(기수)의 성별 연령 분포(미상제외)

- 살인범죄자(기수)는 남성이 77.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살인범죄자(미수 등)도 남성이 88.9%로 나타남
- 살인범죄자(기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1-50세가 24.4%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24.0%, 51-60세가 22.9%, 19-30세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살인범죄자(미수 등)도 41-50세가 35.4%로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는 51-60세 20.0%, 31-40세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8〉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

단위 : 건, %

연령	성별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6세이하		13(44.8)	16(55.2)	29(100.0)	2(66.7)	1(33.3)	3(100.0)
		(6.8)	(7.3)	(7.1)	(0.5)	(0.5)	(0.5)
12세이하		5(35.7)	9(64.3)	14(100.0)	1(33.3)	2(66.7)	3(100.0)
		(2.6)	(4.1)	(3.4)	(0.3)	(1.0)	(0.5)
15세이하		3(42.9)	4(57.1)	7(100.0)	1(50.0)	1(50.0)	2(100.0)
		(1.6)	(1.8)	(1.7)	(0.3)	(0.5)	(0.3)
20세이하		5(41.7)	7(58.3)	12(100.0)	8(53.3)	7(46.7)	15(100.0)
		(2.6)	(3.2)	(2.9)	(2.1)	(3.6)	(2.6)
30세이하		20(46.5)	23(53.5)	43(100.0)	43(65.2)	23(34.8)	66(100.0)
		(10.4)	(10.6)	(10.5)	(11.0)	(11.9)	(11.3)
40세이하		27(49.1)	28(50.9)	55(100.0)	83(70.3)	35(29.7)	118(100.0)
		(14.1)	(12.8)	(13.4)	(21.3)	(18.1)	(20.2)
50세이하		45(47.4)	50(52.6)	95(100.0)	126(64.6)	69(35.4)	195(100.0)
		(23.4)	(22.9)	(23.2)	(32.3)	(35.8)	(33.4)
60세이하		40(49.4)	41(50.6)	81(100.0)	79(68.1)	37(31.9)	116(100.0)
		(20.8)	(18.8)	(19.8)	(20.3)	(19.2)	(19.9)
61세이상		34(46.6)	39(53.4)	73(100.0)	45(71.4)	18(28.6)	63(100.0)
		(17.7)	(17.9)	(17.8)	(11.5)	(9.3)	(10.8)
미상		0(0.0)	1(100.0)	1(100.0)	2(100.0)	0(0.0)	2(100.0)
		(0.0)	(0.5)	(0.2)	(0.5)	(0.0)	(0.3)
계		192(46.8)	218(53.2)	410(100.0)	390(66.9)	193(33.1)	583(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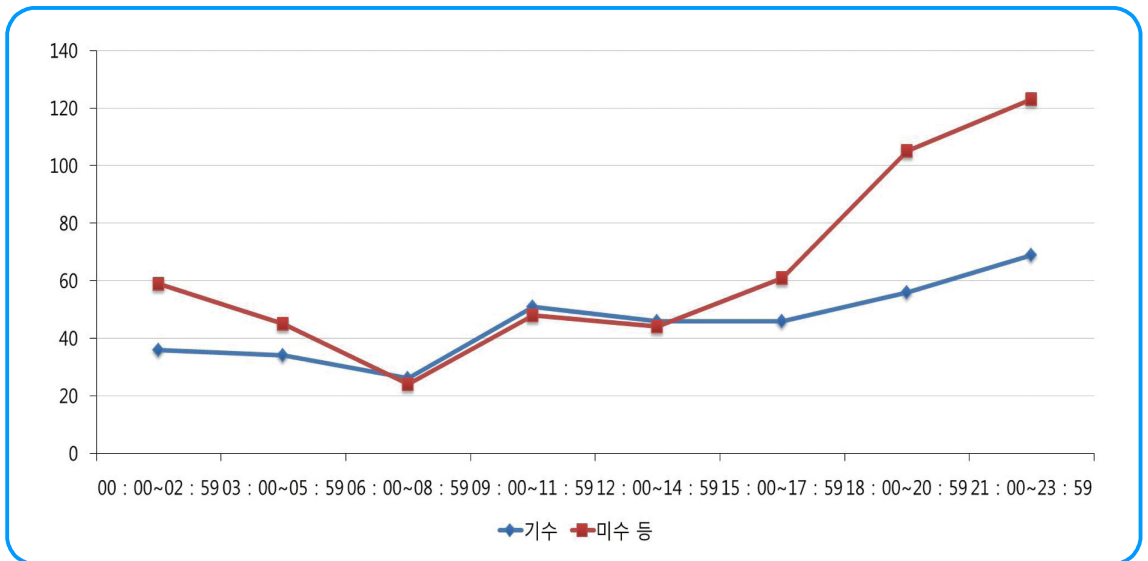
〈그림 20〉 살인범죄(기수) 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미상제외)

- 살인범죄(기수) 피해자는 남성이 46.8%, 여성이 53.2%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살인범죄(미수 등) 피해자는 남성이 66.9%, 여성이 33.1% 등으로 남성이 더 많았음.
- 살인범죄(기수)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50세 이하의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하 19.8%, 61세 이상 17.8%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살인범죄(미수 등) 피해자는 50세 이하 33.4%, 40세 이하 20.2%, 60세 이하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9〉 살인범죄 기수/미수 등별 발생시간 분포

단위 : 건, %

발생시간	기수/미수 등	기수	미수 등	계
00:00~02:59		36	59	95
		(8.8)	(10.1)	(9.5)
03:00~05:59		34	45	79
		(8.3)	(7.7)	(7.9)
06:00~08:59		26	24	50
		(6.3)	(4.1)	(5.0)
09:00~11:59		51	48	99
		(12.4)	(8.2)	(9.9)
12:00~14:59		46	44	90
		(11.2)	(7.5)	(9.0)
15:00~17:59		46	61	107
		(11.2)	(10.4)	(10.8)
18:00~20:59		56	105	161
		(13.6)	(18.0)	(16.2)
21:00~23:59		69	123	192
		(16.8)	(21.1)	(19.3)
미상		47	75	122
		(11.4)	(12.8)	(12.3)
계		411	584	995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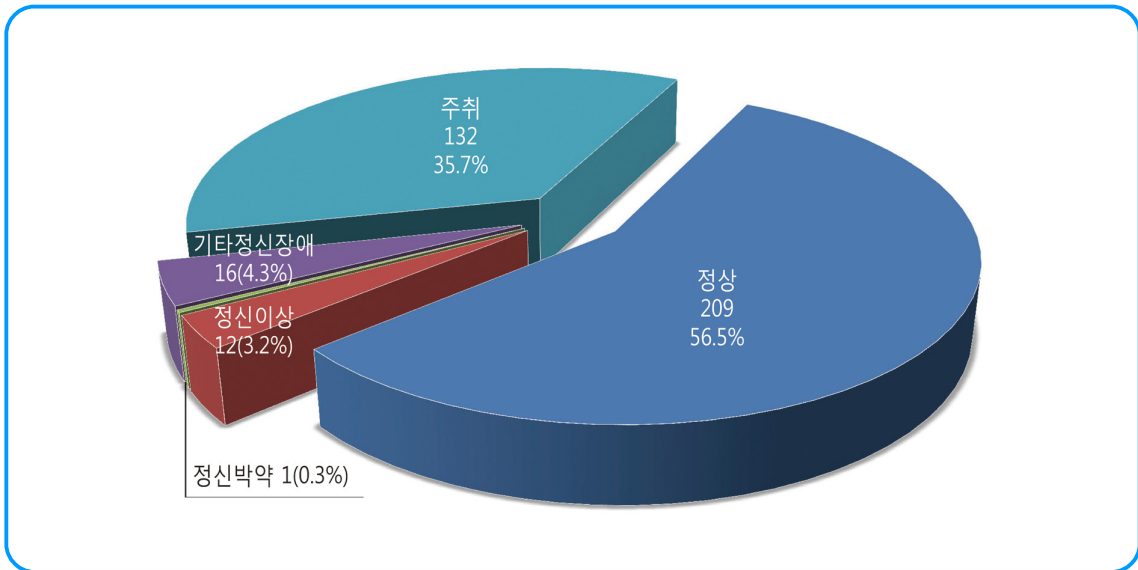
〈그림 21〉 살인범죄 기수/미수 등별 발생시간 분포(미상제외)

- 살인범죄(기수)는 전체적으로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다가 06:00~08:59 시간대에 가장 적게 발생하고, 09:00~11:59에 다시 증가하여 15:00~17:59까지 비슷한 수를 유지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1:00~23:59 시간대에 최고치에 이름
- 살인범죄(미수 등) 범죄 역시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6:00~08:59 시간대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1:00~23:59 시간대에 최고치에 이름

〈표 20〉 살인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인원, %

정신상태	구분	기수		미수 등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209	46.9	234	38.4
정신이상		12	2.7	17	2.8
정신박약		1	0.2	1	0.2
기타정신장애		16	3.6	18	3.0
주취		132	29.6	290	47.5
미상		76	17.0	50	8.2
계		446	100.0	6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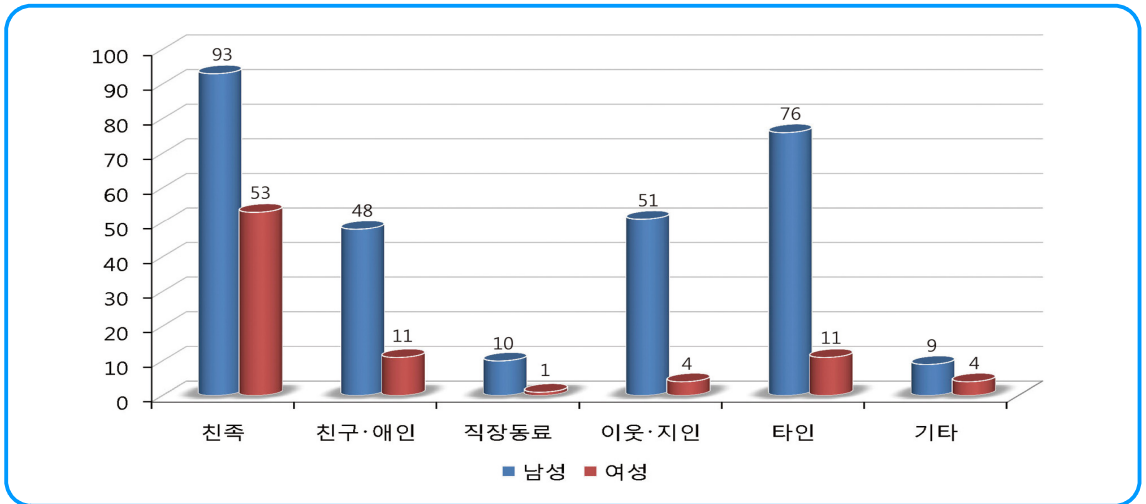
〈그림 22〉 살인범죄자(기수)의 범행시 정신상태(미상제외)

- 살인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범죄자는 거의 없었음. 그러나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살인범죄(기수)의 29.6%, 살인범죄(미수 등)의 47.5%로 나타남.

〈표 21〉 살인범죄자의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인원,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친족	남성	93(63.7)	53(36.3)	146(100.0)	92(81.4)	21(18.6)	113(100.0)
	여성	(27.0)	(52.5)	(32.7)	(17.0)	(30.9)	(18.5)
친구·애인	남성	48(81.4)	11(18.6)	59(100.0)	85(90.4)	9(9.6)	94(100.0)
	여성	(13.9)	(10.9)	(13.2)	(15.7)	(13.2)	(15.4)
직장동료	남성	10(90.9)	1(9.1)	11(100.0)	44(95.7)	2(4.3)	46(100.0)
	여성	(2.9)	(1.0)	(2.5)	(8.1)	(2.9)	(7.5)
이웃·지인	남성	51(92.7)	4(7.3)	55(100.0)	111(91.7)	10(8.3)	121(100.0)
	여성	(14.8)	(4.0)	(12.3)	(20.5)	(14.7)	(19.8)
타인	남성	76(87.4)	11(12.6)	87(100.0)	151(92.6)	12(7.4)	163(100.0)
	여성	(22.0)	(10.9)	(19.5)	(27.9)	(17.6)	(26.7)
기타	남성	9(69.2)	4(30.8)	13(100.0)	24(92.3)	2(7.7)	26(100.0)
	여성	(2.6)	(4.0)	(2.9)	(4.4)	(2.9)	(4.3)
미상	남성	58(77.3)	17(22.7)	75(100.0)	35(74.5)	12(25.5)	47(100.0)
	여성	(16.8)	(16.8)	(16.8)	(6.5)	(17.6)	(7.7)
계	남성	345(77.4)	101(22.6)	446(100.0)	542(88.9)	68(11.1)	610(100.0)
	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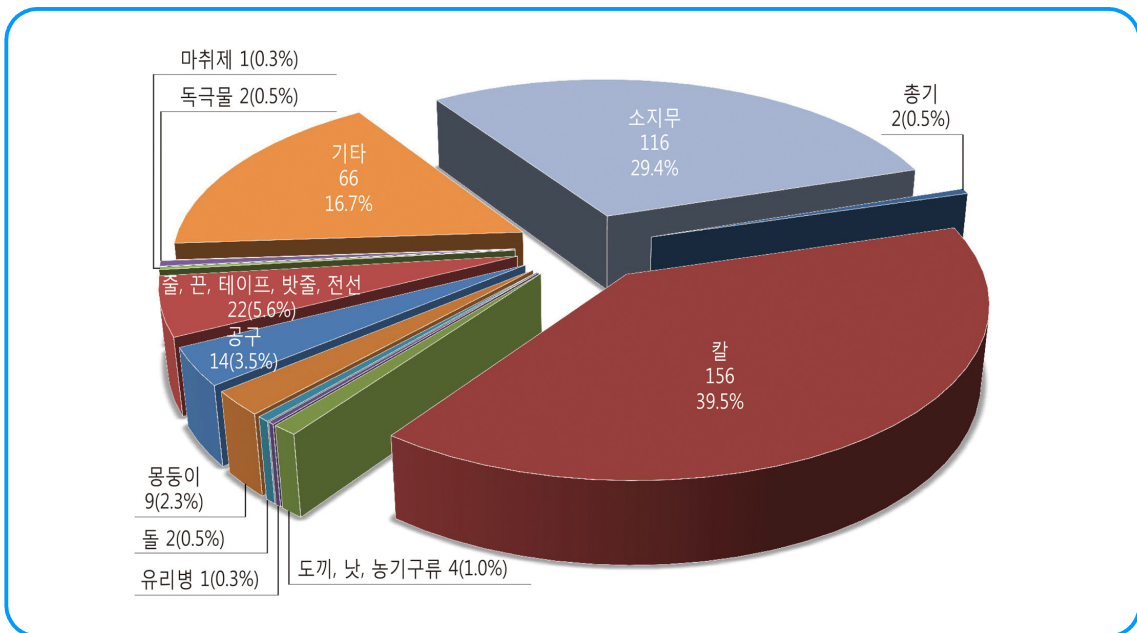
〈그림 23〉 살인범죄자(기수)의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미상제외)

- 살인범죄자(기수)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반면 살인범죄자(미수 등)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웃·지인, 친족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살인범죄자(기수)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비율은 26.6%인데 반해, 여성은 52.5%로 남성의 2배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또한 남성의 경우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21.7%를 나타내었음.
- 살인범죄자(미수 등)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타인이나 이웃·지인에 대한 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장 많았음.

〈표 22〉 살인범죄 범행도구

단위 : 건, %

범행도구	구분	기수		미수 등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총기, 모의총기		2	0.5	5	0.9
칼		156	39.5	404	70.1
도끼, 낫, 농기구류		4	1.0	9	1.6
유리병		1	0.3	16	2.8
돌		2	0.5	5	0.9
몽둥이		9	2.3	3	0.5
공구		14	3.5	38	6.6
줄, 끈, 테이프, 밧줄, 전선		22	5.6	2	0.3
마취제		1	0.3	0	0.0
독극물		2	0.5	9	1.6
컴퓨터		0	0.0	1	0.2
기타		66	16.7	39	6.8
소지무		116	29.4	45	7.8
계		395	100.0	576	100.0



〈그림 24〉 살인범죄(기수) 범행도구

- 살인범죄(기수)의 범행도구를 살펴보면, 칼을 사용한 경우가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줄이나 테이프를 사용한 경우가 5.6% 등으로 나타났음.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29.4%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 살인범죄(미수 등)의 범행도구 역시 칼을 사용한 경우가 7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공구를 사용한 경우가 6.6% 등으로 나타났음.